

2024.2 | No.5

# 함께하는 선교

## FMB MISSION TOGETHER

- 신입생 선교사자녀(MK) 오리엔테이션
- 일본지부 소개
- 디아스포라 선교훈련
- FMB NEWS

\*사진 : FMB 선교사 자녀들 @전쟁기념관

# GOD WITH US

## 2024 FMB 신입생 MK OT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23)

2024년 FMB MK 대학신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OT)을 2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팀수양관에서 진행하였다. 'GOD WITH US'(마1:13)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OT에는 신입생 11명, 스텝으로 섬겨준 MK 선배 18명 등 총 29명의 FMB 자녀들이 참가하여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첫째 날에는 서로를 알아가는 아이스브레이킹 및 이상현 전도사(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등 다수의 CCM 작사, 작곡)가 인도하는 찬양 간증 집회를 가졌다.

둘째 날에는 국가장학금 안내, 강성호 목사의 이단 세미나, 선배 MK와 함께하는 Q&A, 학교별 모임, IMB 설훈 선교사가 진행한 버크만 진단 테스트 등 대학생활을 알차게 시작하도록 돕는 다양한 안내 및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후 저녁 집회에서는 웰사이드 워십팀이 찬양을 인도하였고, 안창국 목사(라이트하우스 고양 교회)가 '뜻을 정한 다니엘'(단1:1-21)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다.

마지막 날에는 신입생 MK를 위한 장학금 수여식을 가진 후, 야외활동으로 전쟁기념관을 방문하고 에버랜드에서 친교를 나누는 활동을 끝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였다.



“ 버크만 진로 검사를 통해 ‘다르다는 것’이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MK이기때문에 또래 친구들과는 다르게 살아왔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의 강점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했어요. ”

“ ‘다른 예수’라는 이단 세미나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인용해 그럴듯하게 꾸며도 구원은 오직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하며 앞으로로도 계속 붙들어야 하는 진리임을 배웠습니다. ”



## “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사명감을 깨닫고 MK로서의 정체성을 다잡는 시간이었요 ”



“ 이상현 전도사님의 찬양과 간증을 통해 지금까지의 내 삶을 뒤돌아 보게 되었어요. 주님의 사랑이 다시금 생각났고 내가 겪은 아픔에 위로가 되어 주었어요. ”

“ 둘째날 설교를 통해,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던 것이 핑계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제 부더라도 말씀 묵상과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을 거예요. ”

“ 진지하게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생겨서 좋았습니다. 원래 제 이야기 하는 것을 안 좋아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저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FMB MK들과 계속 소통하고 연락하며 지내려고 해요. ”

# 일본지부를 소개합니다

# MISSION TO JAPAN

## 일본선교, 이제는 퍼플오션(purple ocean)하라!

퍼플오션이란 레드오션(경쟁이 펼쳐지는 기존 시장)과 블루오션(성장 잠재력을 가진 미개척 시장으로, 경쟁자가 없는 새로운 시장)을 조합한 말이다. 그리고 이 레드와 블루를 혼합하면 얻을 수 있는 보라색으로부터 퍼플오션이라는 말이 생겼다.

사실 17년차 선교사인 필자가 보기에 일본선교가 가진 다양성을 인정하더라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한인들의 공동체는 선교사들의 참여도가 높은 레드오션으로 보인다. 반면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일본어가 주 언어인 현지교회를 섬기는 선교사는 여전히 참여도가 낮은 블루오션의 영역에 있다고 본다. 이런 구조의 원인으로는 선교사의 제한된 커뮤니케이션 능력, 일본교회 및 교단과의 협력을 위한 구조의 부재, 일본교회의 낮은 수용성 등을 들 수 있겠다. 일본선교라는 전체 맥락 안에서 이러한 레드오션 전략의 공헌은 미미하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고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고령화의 강을 건너고 있다. 어느새 60-80대가 교회의 축이 되어 버린 중소도시의 교회들을 시작으로, 10-20년 내에 일본교회가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지역교회와 파송 선교사,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일본선교의 퍼플오션적 접근을 제안한다. 이제부터라도 파송되는 선교사는 일본어가 주 언어인 현지교회(원고없는 일본어 설교가 필수)에서 한 몸을 이루었으면 좋겠고, 주 언어가 한국어인 한인교회들은 이중 언어 예배(한-일, 영-일 등) 및 이웃 현지교회들과의 건강하고 장기적인 연합을 통해 또 다른 보라빛 사역을 시도할 수 있겠다. 일본은 지금 일본교회 내에서 목회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레드와 블루의 강점을 가진 새로운 컬러의 퍼플선교사가 절실하다.

일본선교, 이제는 *퍼플오션* 하자!



일본지부장 박철호 선교사

# MISSION TO JAPAN

일본지부에는 20가정, 32명의 선교사가 소속되어 있으며, 다양한 사역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 CASE 1

한인 사역 위에 이중언어로 선교



## CASE 2

현지 교회 및 유치원 사역



# MISSION TO JAPAN

## CASE 3

### 국제교회 공동체 사역



## CASE 4

### 교육 중점 캠프 및 교육 목회 집중 사역



**PRAY** For 일본지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1. 넓은 지역, 다양한 사역 속에서 지부원의 하나됨과 신뢰가 토양이 되도록
2. 8월에 예정인 지부 전체의 MUT-PRO가 순조롭게 준비되고, 필요가 채워지도록
3. 비추수 지역에서 역동적인 사역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 디아스포라 선교훈련

디아스포라 선교훈련이 지구촌교회의 요청으로 1월 16일부터 25일까지 세계선교훈련원(WMTC)에서 진행되었다.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하고 있는 지구촌교회는 FMB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 침례회 선교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여 이번 훈련을 요청하였고, 이에 지구촌교회 소속 선교사 여섯 가정과 사전 평가를 통해 선정된 늘사랑교회 선교사 한 가정, 충남본지방 소속 선교사 한 가정이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다.

선교사 훈련, 인선위원회의 시취, 해외선교회 허입 과정으로 진행된 이 훈련은 디아스포라 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였고 훈련 내용도 디아스포라 사역에 대한 전문적인 강의와 토론, 연구와 발표 등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침례교 정체성과 선교의 방향 및 책무에 강조점을 두고 FMB 선교사로서의 책임과 의무, 지원과 관리 영역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훈련을 진행하였다.

이후 진행된 FMB 선교사 시취는 해외선교회 이사들과 상담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위원회가 맡았으며,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훈련 중 개인 기록과 부부상담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어 진행하였다. 시취는 세 가정이 통과하였고 다섯 가정은 조건부 통과가 되어 현재 상담과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FMB 선교사 허입을 위한 마지막 과정은 침례교 정체성을 고취시킬 수 있는 선정 도서를 읽고 과제를 제출하는 것이다. 한편 훈련에 참여한 선교사들은 뉴질랜드, 일본, 피지, 베트남, J국의 다섯 개국에서 한인목회를 하고 있다.



DIASPORA

# FMB NEWS

1-2

## 제7회 국내외국인선교지부 정기총회

국내외국인선교지부 정기총회가 2월 5일부터 이틀간 경주 성호리조트에서 진행되었다. 국내외 외국인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섬기고 있는 18명의 FMB 선교사와 주민호 회장 부부, 신갈립 총무가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는 예배와 회의, 주제 토론 및 교제를 통해 동료들의 삶과 사역을 들여다보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첫째 날 개회예배에서는 정원근 목사(포항갈보리침례교회)가 말씀을 전하였고 이후에 진행된 회의를 통해 새 임원진을 선출하였다. 새 임원으로는 지부장에 정영섭, 총무에 임영훈, 서기에 이종혁, 회계에 오주영 선교사가 임명되었다. 둘째 날에는 FMB 주민호 회장이 'FMB 비전'을 설명하며 회원들과 비전을 공유하였고, '국내외국인선교지부의 정체성 및 방향성'에 대한 토의를 통해 발전을 도모하였다.

## 업무협약(MOU) 체결

### 케스코

FMB는 '미전도종족을 위한 교회건축'과 관련하여 (주)케스코(대표 노창진)와 MOU를 체결하였다. 1월 30일에 진행된 협약식에서 (주)케스코는 FMB가 추진하는 해외 선교사업 중에서 '미전도종족을 위한 교회건축'에 대하여 일정한 선교헌금을 2년 간 후원하고 FMB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 힘써 협력하기로 하였다.



## 라이트엔가이드 목회상담연구소

FMB와 라이트엔가이드 목회상담연구소(소장 문미선 박사)는 지난 1월 26일, 선교사 부부 및 자녀 상담, 해외 선교사 모임 시 특강 지원 등 선교사의 치유와 성장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하였다.

# FMB 일정

3월

- 4일-6일 FMB 정기이사회
- 5일-5월 23일 34기 장단기 선교사 훈련 @WMTC
- 16일-17일 만만세 선교축제@늘사랑교회
- 25-27일 본부 연수 MT

4월

- 2일 WMTC 30주년 기념예배
- 7일 만만세 선교축제@방주교회
- 9-12일 FMB 여성 선교사 대회@가평 필그림하우스
- 15-20일 Sender's Summit 2024

## 알림

### FMB 본국사역관

‘연희동 안식관’ 대신 ‘본국사역관’이라고 불러주세요.

FMB 선교사들의 안식처로 사용되고 있는 연희동 안식관의 명칭을 본국사역관으로 변경하였다. ‘본국사역관’은 귀국한 선교사들의 사역이 본국에서도 연장되고 있음을 반영하여 붙인 이름이다. 명칭에 맞게 내부 인테리어에도 변화를 주었다. 선교사들이 성경 연구나 기도 생활을 비롯하여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숙소에 성경연구방과 기도방을 마련하였다.

본국사역관은 팀즈 본국사역관 신청서 링크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FMB본부 본국사역관 담당자 또는 본국사역관 관장에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숙소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비수기(2~4월, 9~11월)와 성수기(12~1월, 5~8월)를 고려하여 일시방문은 3개월, 안식년은 6개월 전부터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사용 시에는 본부사역관 사용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용 신청 및 문의 : 본부 이메일 [fmbkorea@fmb.or.kr](mailto:fmbkorea@fmb.or.kr)

\*본국사역관 관장 : 안진오 선교사 010-2717-0695 / [an1009lz@hanmail.net](mailto:an1009lz@hanmail.net)

### 결혼을 축하합니다!

3월 2일/ 정태호 · 조향자(FMB 동원)/ 자녀 정예주



072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0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빌딩 12층 해외선교회  
선교업무 02) 2619-2202 재정업무 02) 3775-4471 FAX 02) 2619-8797

FMB 해외선교회 후원계좌 | 하나은행 181-04-01159-428 기독교한(협동선교)

홈페이지 [www.fmb.or.kr](http://www.fmb.or.kr) 이메일 [fmbkorea@fmb.or.kr](mailto:fmbkorea@fmb.or.kr) 페이스북 [fmb\\_mission](https://www.facebook.com/fmb_mission) 인스타그램 [fmb\\_mission](https://www.instagram.com/fmb_mission)